

Rudiment Level I

6

Advance Reading

Chapter 1

Reading 2

- 악보의 진행법 (기본적인 악보 기호)
- Squeeze & Release (The Next Step of Picking)

이번 렛슨에 사용 되어 지는 음표기호(음표와 쉼표), Picking 에 관해서는
루디멘트 1 과 2 강의와 인터넷 강의 참조해 주세요.

악보의 조성

드러머로써 악보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악보의 조성(구성)에 관한 설명입니다.

1. 박자

- 박자는 한 마디에 몇 분 음표(아래)가 몇 박(위)이 들어가 있는가를 의미하며, 그 숫자로 인해 그 곡의 박자(몇 분의 몇 박자)가 결정 됩니다.
- 4 분의 4 박자일 경우, 한 마디(소절)에 4 분음표가 4 개(4 박) 들어간다 라는 뜻 입니다.
- 보통, 숫자를 사용한 분수로 적습니다. 분모가 기준 음표이고 분자가 갯수(몇 박) 가 됩니다.
- 자주 사용되어지는 박자는 아래와 같이 기호로 많이 사용 되는데,

4 / 4 박자는  , 2 / 4 박자는  로 표시 합니다.

2. 기본 기호

- 악보에서는 그 악보를 최대한 읽기 쉽고,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호를 사용합니다.
- 드럼 악보 혹은 드럼연주에 필요한 기호에 대한 설명 합니다.



높은음자리표 - 드럼에서는 루디멘트의 악보로 가끔 사용 됩니다.



낮은음자리표 - 드럼셋트에서는 낮은음자리표를 사용합니다. 스네어는 주로 자리표를 사용 않함.



타악기자리표 - 이것은 퍼커션이나 오케스트라의 타악기의 악보로 사용 됩니다.



페르마타(Fermata) - 해당 음표를 2 에서 3 배정도 늘립니다.



달세뇨(Dal Segno) - 세뇨기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한번 더 연주하며 2 번째는 그냥 지나갑니다.



세뇨(Segno) - 달세뇨가 나왔을 때 돌아가는 곳.



다카포(Da Capo) - 처음 부터 한번 더 연주 후 2 번째는 그냥 지나갑니다.

To Coda 

투코다(To Coda)-코다로 돌아갑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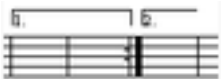
코다



도돌임표가 나오면,  여기서 부터 다시 한번 연주 합니다. 2 번째는 그냥 지나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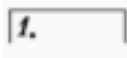


이 사이로 항상 두개가 같이 존재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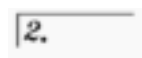


반복 기호.

도돌임표와 같이 쓰이며



1 번 안을 먼저 연주 후, 2 번째(도돌임표)는



2 번 안을 연주 한다.



シミレ(Simile)-그 앞에 있는 소절(마디)과 똑같이 연주 합니다.



타이(Tie)-두개의 음표를 연결해 합친 길이를 하나의 음표로 연주 합니다.

Rit. 리타르단도(Ritardando) - 박자를 점점느려지게 연주합니다. 곡의 엔딩에 자주 사용 됩니다.

3. 박자로서 음표의 관계

- 드럼은 타악기 이기 때문에 **장음(긴음)이 없습니다.** 그로인해 각 소절(마디)마다 그 소절의 기본음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.
- 음표를 한 종류로 일치 시키기 위한 음표와 쉼표에 대한 변환 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.
- 음표명이나 음표의 의미에 대해선 리딩 1 을 참조해 주세요.



※ 같은 음표로 바꾼다

드러머에게 리딩이란? - 리딩은 악보를 읽고 그대로 연주 하는 것을 말 합니다.

드러머의 **리딩의 기초는 루디멘트**(스네어 및 패드 연주) 로 하나의 북을 연주 하는 것 입니다.

지금부터 배워 나아갈 리딩은 초급 레벨로 루디먼트 에서의 리딩을 배워 나아 갈 것입니다.

이 루디멘트 리딩은 스네어 및 연습 패드 하나에서의 연주 연습으로 **드럼이 마칭(군악대)에서 탄생**이 되었던듯, **드럼의 뿌리를 배우는 것**입니다.

음표와 악보 읽는 법이 어느정도 적응이 되면, **싱크페이션을 통해 드럼 셋트에서의 응용법**에 대해 배워 나아 갈 것입니다.

4 분음표의 리딩에서는 루디멘트 2에서 배운
얼티네이트·스틱킹을 기준으로 악보를 읽습니다.

[illegible]

↓
위의 예제에서

Snare Drum

얼티네이트 스틱킹일 때는 위와 같이 되지만,
지금 부터의 리딩에서는 Picking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
피킹은 원래 네츨런 주법의 테크닉입니다.

픽킹을 사용 할 경우, 리듬 컷프(요지)는 가능 하지만,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빠른 템포나 초견(처음 보는 악보를 읽는 것)일 때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.

픽킹의 약점을 없애면서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 스쿼즈&리리스 입니다.
스쿼즈&리리스는 물러 테크닉 입니다.

- **Picking** 은 연주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실제로 소리내어 치지 않는 테크닉 이었습니다.
- 템포를 조절하기는 쉽지만,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테크닉이나 악보의 초견일 때는 움직임이 무너지거나 **Picking** 을 해야 하는데 소리내어 쳐버리는 실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.
- **Squeeze & Release** 는 그 단점을 보완한 몰러 테크닉으로 적을 때는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**S&R** 이라 적습니다.

78